

# 함평군, '호남제일의병장' 죽봉 김태원 충혼비 건립

### 순국 114주기 맞아 함평공원에 재건립

### 일제 영향 등 재건립 필요 끊임없이 지적

호남의 대표 의병장 죽봉 김태원 선생을 추모하는 충혼비가 지난달 27일 함평공원에 재건립됐다.

함평군은 5일 "김태원 의병장 순국 114주기를 맞아 선생의 의로운 넋을 기리고 자주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충혼비 재건립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함평 군민들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선생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함평공원에 선생의 충혼비를 세웠으며, 1993년 재건립했다.

그러나 1993년 건립된 충혼비 비석의 기반 모양이 일제의 영향을 받은 데다 비문의 내용

에도 오류가 있어 재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군 관계자는 "호남 지역의 항일 의병을 이끌었던 선생을 기리는 충혼비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부끄러운 마음뿐이었다"며 "이번 충혼탑 재건립으로 선생의 숭고한 항일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원 의병장은 1907년 호남창의회맹소 선봉장으로 나서며 호남지역 항일 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일본 기병의 기습으로 전사했으며, 1962년 그 공훈을 인정 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함평=김광준 기자



# 목포시, 산정연산지구 경계결정통지서 통보

목포시가 산정연산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시는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한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833필지, 24만4천432.7㎡로 결정했다.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목포시 민원봉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인접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이의가 타당한 경우 경계를 재설정하고,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정리)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로 면적증감에 있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 심의를 거쳐 정산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무안군, 중학교 대상 인터넷 교육방송 지원 확대

### 15일까지 학교 통해 신청·접수...총 130명 추가 지원

무안군은 관내 중학교 재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터넷 교육방송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강남구청과 인터넷 교육방송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해 수강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없애고,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상반기 11개교(고등학교 3, 중학교 8) 380여명에게 수강권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규모는 관내 중학교 재학생 130여 명 내외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발급받아 1년간 온라인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다. 인터넷 교육방

송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인터넷 교육방송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 수도권 지역 학생들과의 학력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 신안군 단호박 일본으로 10년째 수출

신안군은 2022년산 단호박 100톤을 일본으로 수출한다.

신안 단호박 일본수출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이 10년째이다.

올해 지도읍 및 하의·신의·장산 작목반(40농가)과 수출 대협업체와의 600톤 계약재배를 통해 5억~6억의 농가 소득이 예상된다.

청정해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단호박은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노화억제와 성인병

을 예방해주고, 체지방 감소 및 대사질환 예방 등 웰빙식품으로 수요가 높다.

올해 신안군은 단호박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종자, 멀칭비닐, 비료 및 시설지원 등 9천여만원을 지원하였다.

박우량 군수는 단호박의 체계적인 작목환경 및 수출물량 증대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택주 기자

# 영광작은영화관, 조조영화 시작 '뉴노멀 도약'

### 상반기 12,145명 관람...관람인원 1분기 대비 2.5배 급증 상영 확대

영광군은 영광작은영화관이 5일부터 평일 상영시간을 3회차(오후 3회)에서 4회차(오전 1회, 오후 3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광작은영화관은 지난해 영광예술의전당 부지 내에 총 109석, 2개의 상영관과 매점 및 휴게공간으로 준공되었다. 현재는 군민들이 꾸준히 즐겨 찾는 사랑받는 여가 문화의 중심으로서 2021년 영광군을 빛낸 최고의 시책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 상반기 12,145명이 관람하였으며, 개관 이후 총 관람객은 27,821명으로 군민 2인 중 1명이 영화를 관람한 수치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4월 해제) 이후에는 대작들의 영화개봉으로 지난 1분기 대비 관람객이 2.5배 이상 급증하면서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세대가 애용하는 영광군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민들의 문화욕구에 맞춘 이번 확대 운영과 함께 10개 읍면에 설치된 홍보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최신영화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전군민이 문화로부터 소외받지 않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일 오전 상영을 통해 특히 육아에 지친 엄마들과 평소 이용하지 못했던 군민들께서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고 쾌적한 영광작은영화관으로 남당과 감동의 시네마 휴가를 떠나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직업체험 실시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6회기로 진행되며 15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심리검사 및 컨설팅을 통하여 직업적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직업체험을 실시하였다. 웹툰·일러스트, 상담사, 레퍼, 메타버스 등의 직업인들과 직접 만나 직업의 특성 및 과정,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체험을 했으며, 퍼스널컬러, 제빵사 등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직업군에 대한 체험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학교밖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기를 바라며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